

인생은 번갯불처럼 신속하니 '무물의 세계'가 눈앞이다



23 도적도 현자되는 칠장사

“대저 인생이란 번갯불과 같이 신속하며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별이 사라지면 해가 뜨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지금 곧 무물(無物)의 세계로 돌아가려 하니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고려 문종 14년 11월 15일, 죽산(安善) 칠장사에서 큰 별 하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임금(문종)이 국사로 모시던 그 해에 이승의 인연을 마감하고 '무물의 세계'로 돌아간 고승은 해소국사(海昭國師 972-1054)였습니다. 승랍 74세 세남 83세로 눈을 감은 큰 별이 다시 해로 떠오르길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염원 속에 천지가 함께 애도했다고 합니다.

안성 칠현산(七賢山)의 이름은 본래 아미산(峨眉山)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수행하던 해소국사가 일곱 명의 도적을 교화시킨 뒤에 산 이름이 바뀐 것이라 전합니다. 절 이름도 옛 기록에는 칠장사(漆長寺)로 전하니 이 역시 해소국사의 불사로 인해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칠현산 기슭에 가을빛이 찾아 들었습니다. 천 년 전 한 시대의 스승이 떠났던 그 때도 깊은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잎이 절반 이상 떨어지면 감나무마다 주황색 감들이 매달려 제 몸을 익히고 있습니다. 온 몸이 투명해지도록 가을 햇살을 붙잡고 있는 감들이지만 어느 날 시절인연이 다 했음을 알면 그대로 푹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별이 사라지면 해가 뜨듯이 나무에서는 새봄에 다시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을 것임을 감나무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칠장사 부도는 모두 네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사역에 네 곳으로 부도가 나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창을 거듭한 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매우 큰 가람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칠장사에 담도하기 전 오른쪽에 가지런하게 단장된 부도발(경기도 향토유적 제29호)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14기의 부도가 한 줄로 도열해 있는데 모두 석종입니다. 근래 새로 정비되긴 했지만 부도발의 규모나 부도가 많이 운집된 것으로 보아 이곳이 칠장사의 원래 부도밭인 듯합니다.

부도마다 몸돌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고 있지만 그들의 행적은 전하지 않습니다. 맨 오른쪽에서부터 암당원육대사, 송미당지인대사, 보련당해광대사 등 등의 이름들을 아무만지며 번갯불과 같은 삶을 살다 간 고승들의 행화를 생각해 봅니다. 건너편 계곡에서 굶주림을 이겨내는 짐소리가 귀를 파고들입니다. 어느 만신이 푸짐하게 차린 젓상 앞에서 액풀이를 하는 것이겠지요. 인생의 희로애락도 알고 보면 한 줄기 바람일 뿐이란 것을 알면서도 불안하고 답답한 것이 중생인가 불인가.

고승들의 영롱한 생애를 품은 채 한 줄로 나란히



주인을 알수없는 조선시대의 부도가 매우 독특한 형상이다(왼쪽). 해소국사 탐비 이수 및돌 해체된 채 보관 '화려함과 기상' 어리는 듯 벽응대사 행적비 독특, 부도는 없고 사리공만



역사 반영 하듯 경내 4곳에 부도와 탐비 모셔 해소국사 탐비 귀부 이수 및돌 해체된 채 보관 '화려함과 기상' 어리는 듯 벽응대사 행적비 독특, 부도는 없고 사리공만

자리하고 있는 부도밭에 들어서면 묵묵히 앉아 세월을 응시하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나는 번갯불과 같은 세상살이를 어떻게 지기고 있는가? 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홍시처럼 속이 투명해지도록 인내하고 하심하며 지극해 본 적이 있는가?

두 번째 부도밭은 주차장을 오른쪽으로 지나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200미터쯤 올라간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도밭에는 오래되지 않은 듯 한 두 기의 석종이 있고 벽응대사 행적비가 서 있습니다. 비는 정두향이 찬한 글을 담고 있는데 상단에 둥글게 표현된 범자(梵字)가 인상적입니다.

벽응대사는 1576년 경기도 죽산에서 출생해 13세에 출가했습니다. 맑은 성품으로 선과 교를 두루 수행했으며 금강산과 지리산 묘향산과 구월산 등 팔도의 명산들을 유력하며 정진의 끈을 놓지 않다가 만년에 칠현산에서 입적했습니다.



벽응대사 사리탑으로 보이나 몸돌은 없다.

입적한 때가 1657년 정월인데 세속 나이로 83세 법랍은 71세였습니다. 제자들이 다비해 사리 2과를 수습해 칠현산에 부도를 세워 봉안했다는 내용을 담아 비를 세우고 영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응대사의 부도와 비가 함께 세워지고 영당이 지어진 곳이 바로 지금의 부도밭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벽응대사의 영당은 1725년(영조원년)에 이루어진 불사 내역에도 '절 북쪽에 미타전과 벽응대사진영당을 세웠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대사의 영당은 정성껏 모셔졌던 것 같습니다.

벽응대사의 부도는 어디에 있을까? 비 바로 뒤에 몸돌을 잃어버린 지대석이 하나 있습니다. 팔각으로 치석된 지대석의 중앙에는 발공기만한 사리공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팔각의 측면마다 안상이 조각돼 있고 그 크기가 비와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벽응대사의 부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빈 사리공을 들여다보니 거기 푸른 가을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빛돌이 고여 그렇게 하늘을 담고 있는 사리공이 무상감을 더해 줍니다. 흰 빛 사리를 비밀스럽게 모시고 추앙했을 사리공은 부도의 핵입니다. 지대석과 몸돌 사이에 안치된 사리를 도굴해 간 사람들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은 부류들이라 생각해 봅니다. 해소국사는 이 산에서 일곱 도적을 불법에 귀의시켜 현자(賢者)로 만들었다는데, 고승의 유체(遺體)를 훔쳐 치부를 도모하는 사람은 어느 세월에도 불법과 인연 맺을 런지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 와 칠장사 경내로 들어서니

다. 소조 사천왕상에 허리를 굽혀 절하며 들어서는 칠장사의 경내는 가을물이 짙게 들었습니다. 박문수 백일장과 제1회 해소국사다례제 및 전통불사 회향법회를 알리는 현수막에서도 가을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웅전(경기도유형문화재 제114호)에 참배하고 다시 들어갔던 방향으로 되돌아 나옵니다. 단풍나무가 절반쯤 붉게 물든 마당가에 독특한 모양의 부도 3기가 서 있습니다. 그 중 두 기의 부도는 모양이 거의 흡사하고 보주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팔각의 지대석에 길쭉한 팔모기둥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팔각의 고임돌을 얹었습니다. 고임돌 각 면에는 영기문이 조각돼 있고 몸돌은 약간 늘린 원형이어서 매우 탄력 있게 보입니다. 그 위에 화려한 팔각 지붕을 얹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해소국사비(보물 제488호)가 모셔진 비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근래 상당한 불사를 추진해 도량이 산뜻해졌습니다. 해소국사의 부도는 찾을 수가 없고 비각 안에는 귀부와 이수가 따로 놓여 있고 비는 깨진 것을 복구해 세웠습니다. 귀부의 조각은 선이 굵고 이수의 조각 역시 승천하는 용의 기상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귀부위에 빛돌을 올리고 그 위에 이수를 얹어 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굳건한 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비의 주인 해소국사의 수행과 덕화도 그렇게 향기롭고 당당했을까요. 세월이 흐러지고 시

절이 혼탁해 몇 번에 걸쳐 화마를 입은 절이지만, 고승의 행적을 담은 비가 아니라면 어찌 다행일까요. 왕명으로 조성된 비가 아니라면 어찌 이리 정교하고 웅혼할 수 있었습니까. 당시의 불심이 얼마나 간절하고 정성스러웠는지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후대리석 빛돌의 측면에 새겨진 용무늬에 눈을 빼앗깁니다. 여의주를 다루는 용의 발이 길게 묘사됐고 온 몸의 비늘이 매우 사실적입니다. 제법 길게 새겨진 구름무늬도 사실감을 더하고 있는데, 이 빛돌이 깨지지 않고 원형을 보전하고 있다면 아마 용을 조각한 작품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해소국사는 일곱 도적을 성인으로 만들었다는 설화가 보여주듯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습니다. 죽산이 고향이었던 국사는 아홉 살의 나이로 칠장사에 출가해 웅천대사에게 배웠습니다. 승과를 거쳐 대사 직위에 오르고 도승통 등 당대의 승려 지위를 차례대로 승진했던 국사는 문종으로부터 극진한 존경을 받았습다. 만년에 국사가 궁을 떠나 칠장사로 들어가자 할 때 양은 직접 봉은사에서 법요 의식을 갖추고 국사로 추대해 9배를 올리는 예를 올렸습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전송하게 해 귀신을 보살핀다는 내용이 비문의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있다는 것은 시대의 행운입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존경해 받들어 모실 어른이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부강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개인의 의사가 존경되는 시대에 만인의 존경을 받기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만인의 존경은 그만두고라도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만도 어려운 시절이니,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켜 봐야 하겠습니까. 살아갈 날이 많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인생은 번갯불 같이 지나가고 무물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때가 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교용품 / 불교서적 / 불교달력

검색창에 **붓다쇼핑** 을 치세요. www.buddhashopping.com / www.bori.biz

창립 35주년 기념 불교달력 특별할인!

동진기획 · 붓다쇼핑 그곳은 불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금지경전 세트 (3권+주머니) @25,000원(10세트이상) *후대양구시 전화주십시오



금지경전 3권과 주머니형태 @14,000원(10세트이상)



금강반야바라밀경 @1,500원(100권이상)



공단동(8cm) @3,000원(96개이상)



바람동(8cm) @3,300원(96개이상)



비단집동 12cm @2700원(100개이상)



PVC 집게투표(100매) @20,000원



신묘장구대라니(한글) @14,000원(100권이상)



경전사경 제26호 @1,500원(100권이상)



한지 108사경 (4종) @14,000원(100권이상)



금강경 인문사경 @3,500원(50권이상)



무연무취양(1케이스) @12,000원(10케이스이상)



일반일대(1Box 70개) @77,000원



파라판양초(1.8 l 12봉) @50,000원



주목 백발주 @10,000원(10개이상)



반야심경 인문 탐사경 @150원(500권이상)



지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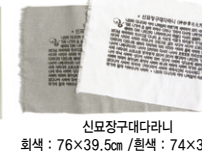
예불전수경 @1,800원(100권이상)



생일카드 @300원(1,000권이상)



인연설 (74x40cm) @4,200원(100권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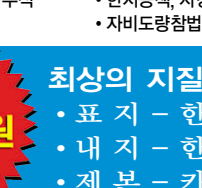
고급다포 @2,000원(100권이상)



신묘장구대라니 @2,000원(100권이상)



일반타을 다포 @2,000원(100권이상)



칼라프린트지 @12,000원(500장)



신묘장구대라니 @2,000원(100권이상)



일반타을 다포 @2,000원(100권이상)

12월 1,000원 (100부이상)

최상의 지질과 최고의 품질로 보답합니다.
· 표 지 - 한국제지 250g/m² 아트지
· 내 지 - 한국제지 180g/m² 스노우지
· 제 본 - 카피어랜드 트윈스프링(국산)

공장→사찰
직거래판매
생산자
도매상
불교상인
사찰



동진기획 · 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오
☎(051) 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령리 364-2번지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 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 총 42종의 달력,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달력카드록 · 용품카드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